

知性の 意味 限定

헤-겔의 歷史哲學에 비추어④

金後善

이런 辨證法的 過程에서 비로소 精神은 自己自身을 알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精神이 自己自身(自由)을 自覺하자면 自然的인 身體에서 單純히 遊離하기보담 오히려 自然的인 身體에 謙虛히 들어가야 한다. 精神이 身體에 慘透지 안코 는모-든 生命은 不可能하다. 生命은 歷史에 잇서서 文化다. 文化의 生産 過程이 卽 歷史이다. 이 歷史에서 精神은 自身을 알게 된다. 精神은 本質的으로 自己의 『外化』에서만 自己를 自覺할 수 있다.

그런데 精神이 身體化하여 外在的 客觀的인 文化를 生産하는 口는 主體의 媒介作用이 必要하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精神의 自覺은 主體의 媒介作用에 걸렸다. 媒介作用이란 틀림없이 主體의 行爲이다. 自覺이란 그림으로 歷史哲學的 意味에서 理解되는 限 主體의 行爲를 通하여야서만 可能하다. 自覺의 問題는 本質的으로 知性の 問題이다. 그러나 이때 自覺은 決코 單純한 自覺이 아니다. 單純한 自覺이란 單純한 自己 意識이다. 單純한 自己 意識은 單純한 自然으로부터의 單純한 獨立 『思惟』의 自己 內 自由뿐이다. 이것은 한 개의 認識論的 抽象에 不過하다.

우리의 自覺은 歷史的 自覺이다. 歷史的 自覺은 決코 自然的인 것을 超越하는 것도 아니요. 그와 獨立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自然에 慘透하여 身體에 統一되어 生命으로서의 文化를 創造하는 精神의 自覺이다. 여기에 歷史的 主體의 自覺의 特殊性이 있다. 여기서 精神은 身體를 忌避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히 迎合한다. 精神의 身體迎合에는 主體의 謙虛하고도 果敢한 媒介의 行爲가 必要하다. 이런 媒介에 依하여 文化는 生産되고 歷史는 論博한다. 그러기 때문에 今日의 知性 問題는 單純한 自覺 問題가 아니라 歷史的 自覺問題며 單純한 思惟의 自律性 問題가 아니라 主體의 行爲 問題이다. 抽象的 思想 問題가 아니라 歷史的 文化 創造의 具體的 行爲 問題이다. 今日의 知性問題는 이리하여 말서 單純한 思想 乃至 理論 問題의 城을넘어서 歷史的 現實

段階에 있어서의 主體의 行爲問題 넓은 實踐 問題가 되었다. 知性 問題의 焦點과 熱度는 여기에 있다.

文化는 以上에서 比較的이나마 『生命』이라고 規定 되었다 生命은 身體와 精神의 統一體이다. 그러기 때문에 文化는 精神的인 것과 身體的인 것의 統一體이다. 具體的으로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고 잇는가? 文化는 『해-겔』에 依하면 『客觀的 精神』이다. 客觀的 精神이기 때문에 文化는 單純한 主體의 自我도 아니고, 單純한 그와 對立되는 客觀的 自我도 아니다. 도리어 第二의 實在이다. 第二의 實在라 하여도, 前 二者에 對立하는 것이 아니라 前 二者가 媒介統一되어 前 二者가 거기서 비로소 意味를 가지는 具體的인 現實 存在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前 二者도 抽象的 存在이다. 그러기 때문에 文化는 精神的이면서도 單純한 精神이 아니요. 도로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自然的인 것이다. 大體로 文化는 精神的인 것이 自然的인 것이 되어 自然的인 것이 精神的인 것이 되지 안코는 成立못한다. 文化에 잇서 自然的인 것이란 文化의 身體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가 生産될 質料的인 現實的 建設 넓은 □案 Elemente이다. 그리고 文化에 잇서 精神的인 것이란 文化가 그리로 方向을 取하여야만 現想的인 理念 乃至 文化가 그것의 引導를 바더야할 指導 原理 又是 絕對精神이다.

文化는 이두가지가 媒介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媒介에는 媒介者를 필요로 한다. 精神的인 것이 身體的인 것이 되는데는 이 兩者를 媒介하여 統一시키는 媒體가 必要하다. 이런 媒介體는 其 自身에 잇서 一個의 統一體로서 自身에 이미 精神的인 原理와 身體的(自然的)인 原理를 가진 生命體가 아니면 안된다. 歷史에 잇서서는 媒介하는 者は 媒介맞는 것과 本質的으로 가튼 것이어야 한다.

媒介者가 其 自身에 잇서서 生命的 統一體기 때문에 生命的인 文化를 生産할 수 잇는 것이다.